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 (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인쇄인

황인구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 967-8133 FAX: 965-0643

2000년 8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41호

“자가규격 허용 104종으로 확대해야”

농민 자가규격 절차도 최소한 간소화 또는 폐지 바람직 생약협회, 규개위에 “농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 호소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중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현재 규제개혁3심의관실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7일 입안 예고된 뒤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관련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동 개정안이 보건복지부의 재 손질을 거쳐 다시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겨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동 개정안은 앞서 마련한 개정안에 비해 농가자가규격허용품목을 30종에서 37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가규격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표시기재사항을 다소 간소화 했다고는 하나 농가자가규격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어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법상 국내 농민생산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판매업소에서도 하지 않는 품목별 생산단위별 품질검사 등을 자기농민에게 요구하고, 농민이 사실상 기록하기 곤란한 내용들을 기록토록 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농민 자가규격허용 품목을 중독우려가 없는 국내 생산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자가규격품 제조 절차도 농민실정에 맞게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생약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복지부가 추진중인 개

정안은 농가부가가치 창출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던 규개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허용품목을 37종으로 한정함으로써 농가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가자가규격 허용품목을 지난해 10월 복지부에서 이미 조사완료한 104종으로 확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가가 자가규격 포장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할수 없는 ‘중독우려품목’을 명시하여 혼선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중독우려 있는 품목을 명시하지 않고 농가가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한정 명시할 경우 과학적 객관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중독우려 품목으로 분류되는 우를 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잡음 및 민원의 소지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생약협회는 또 “한약규격품을 취급할 수 있는 농민의 자격과 규격품의 취급에 필요한 절차 및 표시기재사항 규정내용이 규격품제조업소의 관리기준과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까다롭고 번거로워 규제완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을뿐 아

니라 영세한 재배농가가 개별 농가단위로 자가포장, 판매대장 기록, 품질검사 및 품질검

사성적서를 기록 관리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실제 농가에서 동 제도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자가규격품 생산 농가에 부과하고자 하는 각종 기재및 구비사항등 규제 내지는 불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간소화 또는 폐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중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3심의관실의 심의결과는 이달 중순경 좀 나올 예정이다. (문정희)

식품용 반입약재 해마다 급감 국산 생산실적은 갈수록 감소

한약재로 수입이 제한된 수급조절품목의 식품용 반입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식품용으로 반입된 수급조절품목 수입실적은 지난해 연간 실적인 약 3,300여 톤을 웃도는 4,160여 톤에 이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수급조절품목의 국내 생산량도 갈수록 감소 추세. 농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수급조절품목 생산량은 약 15,455톤으로 지난 97년 생산량인 25,830톤에 비해 무려 1만여톤 정도가 감소했다. 식품으로 반입돼 시장에서 한약재로 변칙 유통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식약청이 올 상반기 중 실시한 특별약사감시 결과에 의하면 한약재 제조업소 120개소, 수입 또는 판매업소 138개소 중 88개소

가 식품용 반입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불법유통하거나 자기품질 검사 누락, 수입한약재 판매시 판매내역 허위기재 등 다양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업소 중 충남 금산군 소재 신일약업, 동방약업, 대화건제약업, 동양건제약업, 부흥건제 도매약업의 경우는 수입식품인 중국산 천궁을 구입해 의약품으로 자체포장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경북 영천 소재 경일약업, 도평상회 등은 중국산 수입한약재 백작약을 불법으로 구입해 판매의 목적으로 취급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전북 전주시 소재 제민당 한약방, 전북 김제 소재 형제한약도매는 수입산 황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 면 안 내

- 유통·시세정보 3면
- 최진규의 토종약초 이야기 ④
〈노간주나무〉 6면
- 감사 이모저모 6면

백작약 실생묘 (6년근) · 종자 판매



20여년 넘게 작약재배를 해온 농민입니다. 수입약재 반입으로 타산이 안 맞아 다른 작목으로 대체코자, 재배 중인 6년근 작약을 받떼기로 판매하고자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 ◆ 6년근 작약 (13,000평) - 작황 최대 양호함
- ◆ 백작약 종자 : 약 100가마 이상
- ◆ 가격은 협의 후 절충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041-741-2895, 011-436-2895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279번지. 송완섭